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562-404-0027) 로 알려주세요.

종교



오늘 이 순간부터 좋은 씨로 살자(마태 13,24-43 (가))

창립 감사예배 선한뜻교회

선한뜻교회(담임목사 추석근, 905 S. Euclid St., Fullerton, CA 92832)가 지난 26일(일) 오후 4시 창립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서 김광삼 목사(가주노회 증경노회장)는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교회' (사도행전 11:19-30)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안디옥 교회의 성장은 하나의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 그것은 바야흐로 이방 선교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 서서히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한뜻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교회로 성장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석근 목사는 "단 한 명이라도 성경을 가르치고 또 책임 있는 목회자로서 사는 모습을 보인다면 참 영향력이 있겠다는 생각에 교회를 개척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뜻에 참여하여 실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고 헌신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저희들의 첫걸음을 내딛는 일에 동행해주시고 축복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 문의: (714) 213-9627

정기 조찬기도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회장 신용, 이하 연합회)는 2일(토) 에반젤리아대학교(2660 W Woodland Dr. # 200, Anaheim, CA 92801) 채플실에서 7월 정기 조찬기도회를 열었다.

이날 기도회에서 박재만 목사(미라클포인트교회 담임, OC교협 부회장)는 '기도의 세 가지 레벨' (마 7:7-8)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과 기도의 사람들이 되자."며 "다시 한번 기도의 뇌관이 회복되어 강력한 복음의 폭발이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를 통해 OC와 남가주와 미국, 그리고 전 세계에 일어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합회는 매월 첫 토요일 오전 8시에 에반젤리아대학교 2층 채플실에서 조찬기도회를 연다. 조찬기도회 설교는 유튜브 채널(OC기독교전도회연합회)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주인이 밭을 다듬고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밭중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 씨를 뿌리고 갔다 합니다. 처음 싹이 나고 있이 날 때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린순이 점점 자라면서 구별이 돼 갑니다. 좋은 씨와 가라지도 뿌리를 뽑고 엮어서 서로 생존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자기 전체를 내걸고 싸우지 않으면 결국 진다는 것보다는 죽음을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경지에서 지게 된다면 씨의 결실인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엔 아무 쓸모가 없고 생명을 주는 양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밖에 버리거나 불태워 버리거나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가라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의미란 바로 우리를 암암리에 해치는 독소입니다. 그러한 독소를 제거하지 않을 경우엔 중독이 되어 인간의 생명을 조급씩 끊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독소가 유혹을 통해서, 마술이나 뱀을 통해서 우리의 오관을 어지럽혀 무질서하게 만들고 마음을 산란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거나 이것이 옳은 일이나 그른 일이나를 진정한 자세에서 잘 분별하여 행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나쁜 일인데..... 인간이란 본래 약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깐 이런 일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도 별것 아닌 것으로 눈감아 주실 거야' 라는 식으로 자기 합리화 시켜서는 안 됩니다.



서의 경제적인 살인, 악법이 성행하는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삶의 좌절을 안고 있다는 점을 귀로 눈으로 직접 간접으로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시는 교행자매 여러분! 삶의 희망을 이들에게 안겨주시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 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맞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루가 18,17) 그 손가락질하는 사람, 자기 안에서 비추어 볼 때 바로 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악과 타협을 잘 할 뿐 아니라 남이 잘하는 모습을 보고 배가 아파서 파괴하려는 가라지와 같은 마음, 남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곳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세상 안에 악과 선이 있습니까? 또 착한 사람들이 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선 피와 땀으로 노력한 대가로 지불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선 미래의 추수까지 말씀하십니다. 추수 때 영원한 불 속에 내던져질 것이 아니라 간선된 자로 남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 순간이 중요한 것이란 점입니다. 매순간 매순간이 한 인간의 역사의 좌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그 말씀 지당하군' 하면서도 나와는 아무 관련 없는 것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내 행동의 좌표가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과 희망을 가지고 바로 이 순간 가라지가 무성함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허위와 교만, 착취라는 굴레로

그래서 우리는 가라지와 같은 허위와 교만, 질투, 시기, 이간질의 씨앗이 내 마음속에 자라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좋은 씨앗이 자라도록 하나씩 하나씩 자기 잘못을 고쳐나 가면서 힘써야 하겠습니다.

또한 바로 내 이웃을 통해 이웃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도록 노력할 뿐 아니라 서로 도와가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힘이 모자라게 될 경우엔 성령에 매일매일 의탁하십시오. 성령께서 잘 되도록 이끄신다고 하셨습니다.(로마 8,26)

-염수완 신부-

사진=shutterstock

라인댄스 초,중급 반

활찬 인생을 위한 건강한 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금요일
오전10시30분

☎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

숨은그림찾기 정답